



## 해외전시정보

앞으로 3개월... 파리는 뜨겁다

# 빵의 올림픽

「유로빵 94」 내년 2월 26일 개막

## '94 월드컵 쟁탈 기술경연 전세계 6백 업체 10만 참가

마로니에와 상제리제 거리, 몽마르뜨언덕으로 유명한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가 국내 제과인들에게 유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빵의 대항연이라 불리는 '유로빵전'이 이곳 파리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12회를 맞는 이번 '유로빵 (EUROPAIN) 94'는 독일의 '이바 (iba)' 일본의 '모박 (MOBAC)쇼'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되며, 지난 92년에도 전세계 1백여개국에서 7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바 있다.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프랑스 파리의 '파리노르 빌 빵뜨 국제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외국의 6백 업체가 참여,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기간 중 각종 경연대회와 세미나가 개최되며 최신 기술과 신제품, 원·부재료, 제과 기기 및 설비 등이 선보인다.

이번 '유로빵 94'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경연대회. 국제 제빵 제과협회가 92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세계 제빵 월드컵대회'가 눈길을 끈다.

선별된 12개 팀이 '뷔에노와즈리(버터, 초콜

릿 등을 섞은 부드러운 빵)'와 '바케트와 특별한 빵', '세계의 빵'이란 주제로 빵 조형 작품을 만드는 이 경연대회에서 참가팀은 최우수 월드컵과 부문별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또 세계 유일의 앙트르메 경연대회로 '샤를르 프리스트 경연대회'가 열리며, 파리 에펠탑과 같은 세계 각국의 기념물을 빵, 과자, 잼, 초콜릿 등으로 제작하는 '세계 기념물 제작 경연대회'가 마련돼 수상자에게는 지중해 관광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여행 경비가 제공된다. 이밖에 각종 행사로 '지방 특산빵 경연대회'가 열리며 프랑스 농식품 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신제품 개발 경연 대회'가 다채롭게 펼쳐져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전시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아울러 대회 기간 중에는 각국의 제과·제빵 기술인이 참가, 그동안 같고 닭은 솜씨를 겨루는 데먼스트레이션이 각종 회의 및 기술 세미나와 함께 개최되며, 프랑스를 비롯해 외국의 유명제과·제빵학교가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는 '학교관'이 설치돼 정보 제공과 상담도 해 줄

예정이다.

제과인과 소매인, 수입업자, 연구원을 비롯해 모든 생산업자가 총망라된 이번 대회의 특징은, 주최측에서 판매하는 '유로빵 94 뻗지'를 구입하면, 함께 개최되는 '국제제과제빵전시회'와 '국제요리전문전시회', '국제양과류 전시회', '국제빙과류전시회' 5개 대회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92년에는 독일의 '이바쇼'와 같은 해에 열려 국내 제과인의 참여가 적었지만 내년에 열리는 '유로빵전'은 사상 최대의 대규모 전시회라니와 지난 2년간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제과인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파리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술과 낭만이 넘쳐 흐르는 도시 파리, 내년 2월 이곳에 가면 우리는 개선문, 에펠탑과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유로빵 94'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로빵 94'참가 및 '유로빵 뻗지'구입 문의  
주한 프랑스 대사관 상무관실 국제 전시부  
(전화 564-9833)

13회를 맞는 '94 모박쇼(MOBAC SHOW)가 일본제빵제과기계공업회 주최로 내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오사카 남쪽 항구 근처에 있는 국제 전람회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제과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일본의 모박쇼는 1971년 오사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온 빵·과자·식품기계 및 자재 종합전으로 현재 세계 3대 제과제빵 전시회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변하는 환경, 제과제빵·쾌적한 공장'이라는 주제로 금년 3월에 열렸던 '93 모박쇼는 해외 16개국 264개사가 참가해 1,696개 부스에서 제과제빵 관련기계·기구 및 원부재료, 기타 식품과 연관된 기계, 설비, 출판물 등이 선보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13회 '94 모박쇼 역시 '제과혁명, 제과유신, 기계가 꿈을 낳는다'란 주제로 각종 제과 관련 기계와 제과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보, 다양한 원자재, 포장재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기계가 꿈을 낳는다'란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제과 관련 기기 품목이 대거 전시되는 것이 특징인데, 전시품목은 ▲제과기계 ▲제과기기 ▲식품가공기계 ▲냉과기기 ▲조리기기 ▲냉동·냉장기기 ▲점포장비 ▲식품포장기기 및 포장자재 ▲물류차량 등 최신제조 기계와 일손을 줄일 수 있는 기계화, 무인화(無人化) 시스템 기기 등이다.

또 제과제빵과 관련된 식품 전반의 다기능기기 및 원자재를 전시하는 한편, 최신 정보와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여러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회는 전문가 및 강사를 초청해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와 제과제빵, 식품 관련 전문 서적을 비치한 북(BOOK) 코너, 이벤트 PR코너, 시식코너가 준비돼 여러가지 사항을 참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박쇼는 2년마다 동경과 오사카에서 번갈아 열렸으나 금년 12회부터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로 바뀌었다. 이때문인지 올해 '93 모박쇼에는 11회때보다 참가국과 업체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부스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년 개최에 따른 참가업체의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7월 30일 현재 내년 '94 모박쇼 참가 신청



제13회 '94 모박쇼가 열릴 오사카국제전람회장. (사진은 '91 모박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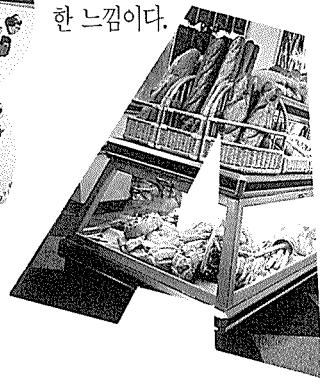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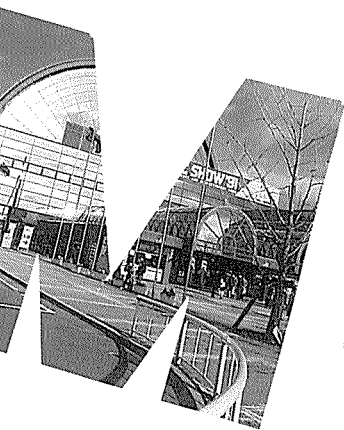


새로운 패턴의 경영방식으로 주목을 받는 이동판매용 차량

현황은 각국의 139사가 1,070부스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년에 비해 참가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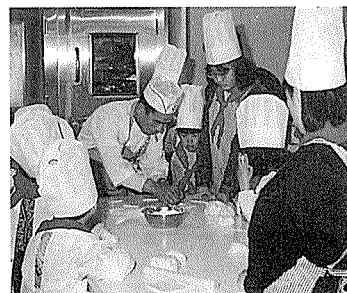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 제과인에게 있어 '94 모박쇼는 가장 친숙한 대회이고 지리적으로나 다양한 전시 내용으로나 우리 제과업계가 당면한 최신 해외 정보와 선진 기술의 습득,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볼거리가 제공되는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내년 3월 오사카 남쪽 항구 근처 국제 전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제13회 '94 모박쇼. 벌써부터 남쪽의 봄바람에 빵의 향기가 실려오는 듯한 느낌이다.



## 해외전시정보

**모박쇼 내년 3월 11일 오사카에서 개막**  
**기계중심의 전시회**  
**7월 현재 1백 40개사 신청**



'91 모박쇼장, 아바얼굴모양의 빵 만들기 이벤트